제13호 태풍 '링링'이 제주를 강타한 7일 서귀포시 호근동의 한 컨테이너가 강한 바람에 날려 인근 펜션을 덮쳤다(사진 왼쪽-독자 제공). 강풍에 꺾인 신호등. 이상국 수습기자

무너지고 꺾이고… 강풍에 속수무책

제13호 태풍 '링링' 주말 제주섬 강타

고산 초속 37.7m 강풍… 정전·시설물 피해 이어져
소방본부 300여회 출동… 하늘길 어제부터 정상화

제13호 태풍 '링링'이 제주섬 곳곳에 상흔을 남기고 떠났다. 비는 상대적으로 산지에만 집중된 반면 30㎧ 이상의 바람이 전지역에 몰아치면서 강풍에 의한 피해가 집중됐다.

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태풍특보가 발효됐던 지난 6일부터 7일 오전 10시까지 총 300회(예방 148건·안전조치 145건·급·배수 5건·구조 2건)의 소방 출동이 이뤄졌다. 이 기간 소방대원 989명과 소방장비 269대가 동원됐으며, 해경에서도 연안 안전사고 '경보'를 발령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태풍 링링에 의한 피해는 비보다 강풍에 의한 것이 많았다. 지난 6일부터 7일 오전 11시까지 기록된 강수량은 윗세오름 409.5㎜, 사제비 401㎜, 제주시 103.1㎜, 서귀포 61㎜, 성산 46.4㎜, 고산 40.4㎜로 해안지역에는 100㎜ 안팎의 비가 내린 반면 바람은 윗세오름 39.3㎧, 고산 37.7㎧, 새별오름 33.2㎧, 월정 32.4㎧, 제주공항 31.2㎧ 등으로 전 지역에 걸쳐 30㎧ 이상의 강풍이 불었기 때문이다.

6일 오후 10시35분쯤 서귀포시 서호동 소재 비닐하우스 2동이 강풍에 무너져 인근 주택을 덮쳐 거주자들이 임시 대피했다. 이어 서귀포시 대정읍 운진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관리척 1척과 하효항, 태흥2리항에 있던 레저보트 2척이 높은 파도에 침몰되기도 했다.

아울러 강한 바람에 의해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전신주가 꺾이고, 건물 외벽과 창문이 파손되는 등 6일과 7일 사이 총 145건의 피해가 신고돼 소방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태풍 링링은 대규모 정전사태도 일으켰다.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7일 오전 0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서귀포시 법환동, 서호동, 대정읍 영락·안성리 등을 중심으로 정전이 발생하기 시작해 이날 오전 7시까지 제주 전역에서 1만55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다. 정전 원인은 강풍에 의한 단선 등으로 추정됐다. 한전 측은 긴급 복구 작업 나서 정전 피해를 겪은 모든 가구에 전기 공급을 재개했다.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하늘길도 이틀째 마비됐다.

7일 태풍으로 인해 제주와 다른 지방을 오가기로 한 항공기 320편(출발 164, 도착 156)이 결항했다. 전날인 6일에도 제주공항에서 95편(출발42, 도착53)이 운항 계획을 취소했다.

제주공항은 8일부터 제모습을 되찾았다. 항공사는 이날 제주공항에 대체 항공편과 정기 항공편 등 510여편(출발·도착)을 투입해 승객들을 실어 날랐으며 결항편 승객과 당일 예약 승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공항 청사가 혼잡을 빚었다.

한편 제주는 태풍에 이어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북상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8일 새벽부터 9일 오후까지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이상민·송은범기자

제주 '전기톱 사건' 적용 혐의 논란

경찰 "살인미수"… 검찰 "고의성 없다" 특수상해

벌초객에 전기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혐의가 적용되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낮 12시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A(42)씨는 김모(61)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마당에 위치한 고조할머니 산소에 대한 벌초에 나섰다. 당시 A씨의 부모와 고등학생 자녀 등도 함께였다.

하지만 산소 주변에 나무가 쌓여 있는 문제로 해당 주택 여주인과 다툼이 벌어졌다. 이 다툼에 주택 세입자였던 김씨가 가세했고, 결국 몸싸움까지 이어졌다. 이후 격분한 김씨는 창고에 있던 전기톱을 들고 나와 A씨의 오른쪽 다리에 휘둘렀다. A씨는 다리 좌골 신경과 근육이 절단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문제는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경찰과는 달리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보다 형량이 낮은 '특수상해'로 혐의를 바꿔 구속기소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A씨의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씨 누나라고 소개한 인물은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주도 전기톱 사건 도와주세요'라는 글에서 "경찰에서는 '김씨가 첫 가해 후 재차 전기톱을 들어올리는 영상이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했지만, 검찰은 겁만주려 했다는 김씨 진술을 토대로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김씨는 계속해서 전기톱을 휘두르려 했고,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 당시 처음 만났고, 전기톱을 한번만 휘두른 점에 비춰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카니발 난폭운전' 피의자 구속영장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를 보복 폭행한 '제주 카니발 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인근 도로에서 카니발 SUV 차량을 몰던 중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 B씨의 얼굴을 생수통과 주먹으로 한 차례씩 가격하고, 영상을 촬영하던 B씨의 부인 핸드폰을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5살과 8살 난 자녀들이 함께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백한 혐의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아동학대 등 증거수집을 보강해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도내 30개 학교 태풍 피해 속출

도교육청 "피해 경미… 학사 일정 영향없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덕수초등학교 등 도내 30개 학교가 시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태풍으로 시설 피해를 입은 덕수초는 강풍에 의해 다목적강당 지붕이 무너지고 천정 판넬 상당 부분이 떨어졌다. 또한 김녕초등학교는 본관건물 지붕 처마 일부가 뜯어지고, 무릉초등학교는 동물농장 천막이 파손되면서 인근 사유지로 넘어가 비닐하우스를 파손시킨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이와 함께 장전초등학교는 다목적 체육관 1층 천장이 부분 파손됐으며, 한림초등학교에서는 나무가 뽑히는 피해를 입었다. 한천초등학교는 본관 외벽 창호 난간이 부분 탈락하고 체육관 연결통로 비가림 지붕 일부가 날아갔으며, 제주외국어고등학교는 정문 진입로 펜스 일부가 파손되고 교실 천장 등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

교육청은 "7일 낮 12시까지 30개 학교에서 태풍 링링으로 인한 시설 피해가 접수됐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는 학사 운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희 부교육감은 7일 피해 학교 현장을 점검하면서 신속한 피해 원인 파악과 복구 대책을 시행해 학생 안전과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주문했다.

한편 해병 91대대 대대장과 장병 30여명, 안덕소방서 관계자 4명 등은 덕수초등학교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1시부터 덕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천정 텍스 잔재물 등을 정리하는 등 태풍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실종 물놀이객 숨진채 발견

7일 오후 일행 2명과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다 실종됐던 30대가 하루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색달동 한 호텔에서 100m쯤 떨어진 해상에서 이모(33·서울)씨가 숨진채 떠있는 것을 관광객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이씨가 높은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함께 물놀이했던 일행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양어장 펌프실에서 화재

7일 오후 2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한 양어장 펌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불은 출동한 119에 의해 30분만에 진화됐지만 양식장 펌프실 내부 33㎡와 산소발생기, 비상발전기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8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제주대 와이덱스 보청기 CGV 광양사거리 화북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전세 렌터카
2018. 12. 17. 제23회 소비자의날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수상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처럼 새차 탈때 낸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당신의 자산과 가치를 지켜주는 카테크의 시작 전세렌터카로 갈아타세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자!!
개인, 법인 사업자 경비 처리됨
매월 관리비와 기름값으로 풀옵션 차량을 탈 수 있다.
주행거리 제한 없는 상품
우리가족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상태 상관없이 이용가능
무료정비서비스는 S정비업체 사고처리는 S화재
4년마다 원하는 신모델 차량을 순환으로 탈 수 있다.
4년 뒤 보증금 100% 환불
이젠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편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개념으로 보셔야 할때.
내가 원하는 국내, 수입차 전차종 가능...
세금 부담
정비 부담
보험 부담
주행거리 제한
S보험사 정비 안전성 보험 S정비업체 자금보증
국내최초 전세렌터카 | 원카 WONCAR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실생 특묘 정식 할 수 있는 묘목
유라실생 3년생
감 평 3년생
천 혜 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 금 향 4년생
하래조생 3년생
탱 자 묘 1년생, 수고 70전
한림종묘
010-3690-2453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리모델링
辛(신)一(일)祚(조)
누수탐지·방수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